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 of Diaspora Huguenots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of the Huguenots, French Protestants who were persecuted during the Reformation and dispersed around the world. Although they were refugees at the time, they were in fact high skilled watch makers, printers, metalworkers, textile workers, entrepreneurs, bankers, teachers, lawyers, doctors, and merchants. After the Edict of Nantes was abolished by the Edict of Fontainebleau of Louis XIV in 1685, more Huguenots dispersed Switzerland, South Africa, England, Ireland, the Netherlands,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nd especially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Then why did these Huguenots live with such a different worldview from the Catholics of the time and why did they dynamically change those countries with creative and innovative entrepreneurship?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first briefl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Huguenot diaspora, then examines how they became a channel of blessing in the places where they settled, and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lessons this history can provide for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Huguenots, Calvinism, entrepreneurship, work ethic, Industrial Revolution

* 2025년 2월 11일 접수, 2월 28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본 논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박해를 받아 전 세계로 흩어진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연구이다. 이들은 당시에 비록 난민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고급 기술을 가진 정밀 시계 가공업자, 인쇄업자, 금속장인, 섬유업자 및 전문적인 직업인들, 즉 기업가, 은행가, 교사, 법률가, 의사, 상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국외로 도피한 것은 프랑스 편에서 볼 때 고급인력의 고갈(brain drain)이었다(Le Hir, 2020: 64). 가령 스위스의 제네바는 당시 인구가 만 명 정도였으나 칼뱅의 개혁을 수용하고 그를 통해 위그노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는 두 배로 급증했고 칼뱅의 직업 소명론 및 개신교 노동윤리 등의 성경적 세계관은 제네바를 놀랍게 변혁시켰다(최용준, 2018: 323-351). 나아가 프랑스의 앙리 4세(Henri IV)가 1598년에 개신교도의 신앙적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기 위해 선포한 낭트 칙령(L'édit de Nantes)이 1685년 루이 14세(Louis XIV)의 폰텐블로 칙령(L'édit de Fontainebleau)에 따라 폐지된 이후 더 많은 위그노가 스위스뿐 아니라 남아공,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지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에도 크게 이바지했다(Beaudreau, 2016)¹

그렇다면 왜 이 위그노들은 당시 천주교도들과 다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왜 이들에게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역동적으로 넘쳐났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흩어져 어떻게 그 정착한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본 주제에 관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네덜란드어로 된 문헌은 많이 있다(Bakker, 1985 ; Birnstiel & Bernat, 2001 ; Botha, 1919 ; Forest, 2021 ; Gresch, 2009 ; Griffin, 2018 ; Hornung, 2014 ; Lugan, 1996 ; Luu, 1997 ; Mckee & Vigne, 2013 ; Schilling, 1983 등). 국내에는 위그노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있으나(성원용 2021 ; 유경하, 2022 ; 조병수, 2018) 이 특별한 주제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이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어떻게 기업가정신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고찰한 후 이러한 역사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 결론을 맺겠다.

1) 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II.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디아스포라 위그노

위그노의 망명은 1572년 8월 24일에 파리에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시작하여 10월까지 로마 가톨릭교회 추종자들이 개신교도들을 학살(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한 사건으로 촉발했다. 더이상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 어렵게 되자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조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인구 1,800만 명 중 개신교 인구는 11%인 200만 정도였다. 그중에서 약 100만 명의 위그노가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독일로 간 위그노는 베를린에서 엘리트 계층이 되었고 제조업과 기계 산업을 육성하였다. 네덜란드로 간 위그노는 무역업을 일으켰다. 영국으로 간 위그노는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스위스로 간 위그노는 정밀시계산업과 금융업과 사회봉사 기관을 세웠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위그노는 최상급 포도주 산업을 일으켰다. 미국으로 간 위그노는 예술가와 엔지니어 등 지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지도층이 되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를 포함한 8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위그노 후손이다. 이렇게 프랑스의 위그노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나라마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역사의 전환을 이룬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들은 칼뱅의 후예들로서 어느 곳에서나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면, 검소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이다(성원용, 2021). 나아가 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발전시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고 새롭게 뿌리내린 지역에서 경제, 산업 및 문화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결국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2.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 도착한 최초의 위그노는 네덜란드 총독 얀 판 리벡(Jan van Riebeeck)의 아내이자 왈롱 교회 목사의 딸인 마리아 드 라 켈러리(Maria de la Quellerie)로 1652년 4월 6일에 도착하여 남편과 함께 오늘날의 케이프타운(Cape Town)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10년 후 바타비아(Batavia)로 떠났다. 일부 위그노는 1671년 초 남아공의 희망봉³에 정착했다. 그 후 네덜란드에서 희망봉에

2) 바타비아는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의 수도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당한다.

3) 희망봉(Cape of Good Hope, 아프리카어: Kaap die Goeie Hoop, 네덜란드어: Kaap de Goede Hoop)은 남아공의 웨스턴 케이프주 남서안에 있는 곳으로 케이프타운 남쪽 48km에 있다.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⁴ 기지로 첫 번째 위그노 집단이 1687년 12월 31일에 출항했다(Botha, 1919: 7). 케이프에 정착한 위그노교도 중 가장 많은 수는 1688년과 1691년 사이에 178가족이 4척의 배를 타고 도착했으며, 그 후 1700년까지 도착한 사람도 꽤 많았으며 그 이후로는 수가 줄었다(Botha, 1919: 10). 이 정착민 중 다수는 나중에 프란쉬후크(Franschhoek: 프랑스 코너)라고 불리는 지역의 땅을 받았는데, 이 지역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부 케이프주에 있다. 이곳에는 위그노가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대형 기념비가 1948년 4월 7일 이곳에 제막되었고 위그노 기념관도 그곳에 세워져 1957년에 개관했다.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공식 정책은 위그노와 네덜란드 공동체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위그노 공동체와 함께 도착한 폴 루(Paul Roux) 목사가 1724년에 사망하자 네덜란드 행정부는 특별히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다른 프랑스 성직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허용했다(Walker, 1968). 하지만 이들도 동화되면서 3세대 이내에 위그노는 대부분 네덜란드어를 모국어로 채택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부 케이프주의 많은 농장은 여전히 프랑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대부분 아프리칸스⁵를 사용하지만, 위그노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프랑스 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남아공의 백인들을 지칭하는 아프리카너들(Afrikaners)의 20%는 du Plessis, de Villiers, du Toit, Theron, le Clos, Joubert, Malan, Fouché, Naudé, Terreblanche, Roux, Le Roux, Olivier, Marais 등과 같은 프랑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Le Clercq가 de Klerk로, Durand는 du Randt로, Pinard는 Pienaar, Villon은 Viljoen, Rétif는 Retief, Rousseau는 Rossouw로, Taillard는 Taljaard로 등으로 변경되었다(Lugan, 1996 ; Watkinson, 1875: 274).

초기에 정착한 위그노들은 이곳의 지형이 그들 대부분의 고향인 프랑스 남부 세벤느(Cévennes) 지역과 유사하여 이 지역에 정착한 후 비교적 신속히 적응하면서 그들이 가진 경험과 신앙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며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였다. 당시 이곳은 네덜란드동인도회사 선박이 바타비아로 향하는 항로에서 필수적인 중간 기착지였으므로 동인도 회사는 위그노들을 남아공으로 초청했고 그들에게 선박에 공급하기 위해 농업과 포도 재배 산업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그곳에 정착한 위그노 일부는 프랑스의 남부 프로방스 출신으로 이미 거기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브랜드 증류업자였으므로 이곳에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했다(Fourie, & Von Fintel, 2014). 처음 3년간 땅을 개간한 후, 수확을 시작하여 18세기가 되어 대부분의 위그노 농부들은 부자가 되었으며 300년 후, 남아공은 세계 7위의 포도주 생산국이 되었다. 남아공 포도주의 90%가 이

4) 공식 명칭은 연합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로 네덜란드에서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위해 1602년에 세운 다국적 기업이며, 최초의 주식회사이다.

5) 아프리칸스어(Afrikaans)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로 16-17세기에 네덜란드 농민 출신 이주자들의 후손이 써오던 네덜란드어가 독자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성립되었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콘스탄치아(Constantia), 파알(Paarl), 스텔렌보스(Stellenbosch) 및 보르세스터(Worcester)는 위그노들에 의해 세계적인 수준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스텔렌보스에 네덜란드에서 온 개신교 이민자들과 함께 남아공 최초의 대학인 스텔렌보스 대학교도 설립했다. 이처럼 남아공으로 이주한 위그노들은 전체 위그노 디아스포라 20만 명에 비하면 매우 소수였지만 대부분 프랑스의 자본가와 귀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조국인 남아공의 건국과 발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재도 양성했다. 이것은 당시 남아공으로 온 네덜란드 및 독일계 이민자들이 비교적 하류층 농민들이었고 대부분 실업자였던 사실과 대조가 된다⁶. 프란쉬후크에 있는 위그노 기념관은 이러한 유산을 잘 보여주며 정치, 금융계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에서도 프랑스 성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령 남아공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를 석방한 후 그가 대통령으로 출마하자 부통령으로 출마하여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 분리 및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화해를 끌어내어 만델라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드 클레르크(Frederik Willem de Klerk)도 위그노 출신이었고 1995년에 남아공에서 개최된,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 주장의 이름도 프랑수아 피나르(Jacobus Francois Pienaar)였다.⁷

2) 미국과 캐나다

많은 위그노들이 16세기에 브라질, 플로리다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탐험에 참여했다. 그것은 왕권에 의해 추진되었고 콜리니 제독에 의해 시작된 남극 프랑스를 건설하려는 꿈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스페인과의 경쟁에 밀려 오래가지 못했다. 1562년 장 리보(Jean Ribault)가 플로리다와 현재의 미국 남동부를 탐험하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파리스(Parris) 섬에 샤를포트(Charlesfort) 전초기지를 세웠으나 프랑스의 종교 전쟁으로 인해 귀환할 수 없어졌고 이 기지는 버려졌다. 1564년 리보의 전 부관 르네 드 로도니에르(René G. de Laudonnière)가 두 번째로 플로리다 잭슨빌(Jacksonville)에 포트 캐롤라인(Fort Caroline)을 건설했지만, 국내 전쟁으로 보급이 막혔고 1565년에 스페인이 군대를 파견하여 프랑스군을 격파하였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Mayflower)호가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는 소수의 위그노들도 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금지로 뉴프랑스⁸에 정착하지 못한 제시 드 포레스트(Jessé

6) Tristan d'Albis, museeprotestant.org/en/notice/the-huguenots-in-south-africa/?parc=31903

7) 이것을 통해 만델라의 화해 정신과 남아공의 통합을 조명한 영화가 'Invictus'이다.

8) 누벨프랑스(프랑스어: Nouvelle-France, 영어: New France)는 북아메리카에 있던 프랑스의 식민지이다. 1534년 자크 카르띠에(Jacques Cartier)가 세인트로렌스강을 탐험하기 시작한 이래, 1763년 프랑스가 누벨프랑스를 스페인과 대영제국에 할양할 때까지 지속하였다. 1712년의 전성기에 영토는 뉴펀들랜드에서 로키산맥까지 그리고 허드슨만에서 멕시코만에 이르렀다.

de Forest)가 이끄는 위그노들은 그 대신 1624년에 네덜란드 식민지인 뉴네덜란드⁹와 노바스코샤(Nova Scotia)¹⁰를 포함한 영국 식민지에 정착했다. 뉴암스테르담의 여러 가족은 종종 이전 세기에 네덜란드에 난민으로 이주했던 위그노 출신이었다. 1628년에 이들은 지금의 뉴욕인 뉴암스테르담에 프랑스 교회(L'Église française à la Nouvelle-Amsterdam)를 설립했는데 지금도 성령교회(L'Eglise du Saint-Esprit)로 있으며, 현재 성공회 공동체의 일부로 전 세계 프랑스어권 뉴욕커들을 환영한다. 뉴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위그노들은 롱아일랜드의 맨해튼 바로 건너편에 영구 정착지를 받았고, 뉴타운 크릭(Newtown Creek) 끝에 있는 항구를 선택했으며, 당시 부쉬윅(Bushwick)으로 알려진 브루클린(Brooklyn)에 사는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다. 1662년 초에 라로셴(La Rochelle)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청원서를 보내 그곳에 정착하여 영국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져 150가구가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그노 이민자들은 또한 뉴욕에서 북쪽으로 약 21마일 떨어진 뉴로셴(New Rochelle)과 더 북쪽의 뉴팔츠(New Paltz)에도 정착했다. 롱아일랜드 사운드 북쪽 해안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에 있는 뉴로셴은 뉴욕에서 위그노의 주요 거주지였다. 그들은 종교적 박해로 영국으로 간 후 낭트 칙령이 폐지되기 4년 전에 “보페 포인트(Bauffet's Point)”라고 불리는 다븐포트넥(Davenport's Neck)의 해안 반도에 상륙했다. 그들은 제이콥 라이슬러(Jacob Leisler)의 도움을 받아 펠럼 매너의 군주(Lord of Pelham Manor)인 존 펠(John Pell)로부터 6,100에이커 규모의 땅을 매입한 후 프랑스에서 그들의 거점이었던 라로셴의 이름을 따서 뉴로셴(New Rochelle)이라고 명명했다. 이곳에서 위그노들은 학교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여학생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18세기에 뉴로셴은 교육과 예의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유지했다. 뉴팔츠의 “위그노 거리 역사 지구”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소수의 위그노교도는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남쪽 해안에도 정착했는데, 현재의 위그노 동네는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 보스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패뉴일 홀(Faneuil Hall)”은 라로셴에서 온 패뉴일 가족이 공공 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에 기증했다.¹¹

위그노 난민들은 1725년 펜실베이니아 동부의 델라웨어강 계곡과 뉴저지 헌터돈 카운티(Hunterdon County)에도 정착했다. 뉴저지의 프렌치 타운은 초기 정착민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Calvin, 1945: 47-53, 57-71). 영국이 뉴프랑스를 정복한 후, 캐나다의 영국 당국은 프랑스어를 사용

9) 뉴네덜란드(네덜란드어: Nieuw-Nederland)는 1600년대 초반 아메리카의 네덜란드 식민지였다. 지금의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주들의 지역을 포함하였다.

10) 노바스코샤주(영어: Nova Scotia)는 “새 스코틀랜드”라는 의미로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주이며, 주도는 핼리팩스이다. 스코틀랜드 문화가 강한 주로, 스코틀랜드계 주민이 29.3%를 차지한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앤의 고향이 바로 이곳 노바스코샤이다.

11) museeprotestant.org/en/notice/the-huguenot-refuge-in-america/?parc=31903

하는 개신교 교회를 이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 위그노 이민을 장려했다. 그 결과 소수의 위그노가 이주했지만, 대부분은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바꾸었으며 오늘날 퀘벡에서는 개신교도가 여전히 소수자이다.¹²

1700년에도 수백 명의 위그노교도가 영국에서 버지니아 식민지로 이주했는데, 영국의 윌리엄 3세(William III)가 그들에게 로어 노퍽 카운티(Lower Norfolk County)의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식민지 당국은 대신 제임스 강 폭포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버려진 모나칸 마을(Monacan village)인 마나킨 타운(Manakin Town, 현재 구칠랜드 카운티(Goochland County)의 땅을 제공했다. 일부 정착민은 현재의 체스터필드 카운티(Chesterfield County)에 상륙했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프랑스인 후손들은 서쪽의 피드몬트(Piedmont)로 이주했고, 애팔래치아 산맥을 건너 켄터키, 테네시, 미주리 및 기타 주가 된 서부로 이주했다.

많은 위그노교도는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Charleston) 지역에도 정착했다. 1685년 프랑스 폰스(Pons) 타운 출신의 엘리 프리올로(Elie Prioleau) 목사가 그곳에 정착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는 거기서 북미 최초의 위그노 교회 목사가 되었다. 낭트 칙령이 폐지된 후, 여러 위그노 난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했는데 영국 왕실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약 50가구가 정착하여 포도나무, 뽕나무, 올리브나무를 경작하여 모범 농장을 만들고 농업을 발전시켰다. 나아가 그들은 부동산 사업 및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변형했으며 그들의 후손 중 일부는 딥 사우스와 텍사스(Deep South and Texas)로 이주하여 새로운 농장을 개발했다.

이들은 특히 식민지 후기와 연방 초기에 기업가와 장인으로서 미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가령, 저명한 프랑스의 화학자였던 라부아지에(Antoine-Laurent de Lavoisier)의 학생이었던 듀폰(E. I. du Pont)은 1802년에 엘루테리아 화약 공장(Elleutherian gunpowder mills)을 세웠다. 이 회사는 나중에 듀폰(DuPont)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듀폰은 미국 군대에 가장 큰 화약 공급자였고 남북 전쟁 시기에 북군이 사용한 화약의 40%를 공급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 대책, 그리고 고품질을 무기로 미국 정부의 신뢰를 얻어, 이윽고 20세기에 들어서 다이내마이트나 무연 화약 등을 제조하게 되었다. 제1, 2차 세계 대전에서는 화약이나 폭탄을 공급한 것 외에 맨해튼 계획에도 참여해 테네시주의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에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등 미국의 전쟁을 지원했다. 나아가 듀폰 가에서는 해군 군인 새뮤얼 듀폰 등을 배출했고 또한 초창기 자동차 산업에 주목해, 1914년에는 피에르 듀폰이 1908년에 창업한 GM사에 출자했으며, 후에 그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지휘

12) www.thecanadianencyclopedia.ca

와 듀폰 사의 지원 아래, GM 사는 미국 1위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다. 기타 유명한 투자자요, 조종사이며, 영화감독인 동시에 자선가였던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도 위그노 출신으로 존 가노(John Gano) 목사의 후손이었고 은세공업자로 유명한 폴 리비어(Paul Revere)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합 규약에 서명한 헨리 로렌스(Henry Laurens)와 같이 위그노 후손으로 미국의 발전에 공헌했고 기타 존 제이(John Jay), 헨리 로렌스, 엘리야스 부디노(Elias Boudinot) 같은 정치가들도 미국 혁명에 크게 공헌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로 간 일부 위그노들은 네덜란드 독립전쟁(1568-1648)의 초기 몇 년 동안 네덜란드인들과 함께 스페인에 맞서 싸웠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더욱 빠르게 위그노 망명자들의 목적지가 되었고 일부 네덜란드 귀족은 위그노 후손이다. 파리에서 살해된 위그노 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Gaspard de Coligny)의 딸인 루이즈 드 콜리니(Louise de Coligny)는 네덜란드 독립운동 지도자인 침묵의 윌리엄(William the Silent)과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생활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델프트(Delft)의 프린센호프(Prinsenhof)에 있는 그들의 궁정 교회는 프랑스어로 예배를 드렸다. 이처럼 위그노와 네덜란드 공화국의 군사 및 정치 지도부인 오란여 나사우 가문 간의 유대는 네덜란드 독립전쟁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나아가 남아공과 북미의 뉴네덜란드 같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식민지에 위그노가 일찍 정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 영국 국왕이 된 윌리엄 3세는 1672년 프랑스가 네덜란드 공화국을 공격하자 루이 14세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로 떠올랐다. 그는 프랑스에 반대하는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결성했고 그 결과 많은 위그노들은 부유하고 칼뱅주의가 지배하는 네덜란드 공화국을 가장 매력적인 망명지로 여겼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이미 왈롱 교회(Waalse kerk)라고 부르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칼뱅주의 교회가 있었기에 1685년 낭트 칙령이 폐지된 후, 네덜란드 공화국은 가장 많은 위그노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약 75,000-100,000명이었다. 그들 중 목사가 200명 있었고 대부분은 프랑스 북부와 서플랑드르에서 왔으며 남부 세벤느 지방에서도 왔다. 당시 네덜란드 공화국 전체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으므로 이는 엄청난 유입이었다. 1705년에 암스테르담과 서프리지아 지역은 위그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제공했고 1715년에는 네덜란드 공화국 전체가 그렇게 했다.

위그노가 네덜란드를 선택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16세기 말에는 프랑스 칼뱅주의자와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이에 많은 문화적 연관성이 있었다. 1575년 레이던 대학이 설립될 때 위그노 출신인 프랑수아 뒤 중(François du Jon, 1545-1602)이 신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그는 개혁신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다가 네덜란드는 루이 14세의 절대주의와 그의 팽창주의 정책

에 점점 더 적대적으로 되었고, 정부의 중앙 집권주의를 거부했다. 나아가 처음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나중에는 모든 대도시의 다른 지방 및 지방 당국에서 매우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주도했고 위그노 난민에게 세금 면제, 부르주아의 권리에 대한 자유롭고 명확한 할당, 다양한 길드에 대한 자유롭고 비공식적인 접근, 수단이 없는 장인을 위한 재정 지원과 같은 많은 권리와 특권을 약속했다. 인구 확장과 경제 개발이 연계되면서 난민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도시 간의 경쟁이 발전했다. 경제적 동기는 자연스럽게 존재했으며, 프랑스와의 악화된 정치 및 상업 관계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콜베르가 프랑스에서 외국 제품에 대한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네덜란드 상인들은 보호 무역 정책을 추구하고, 따라서 프랑스 제품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산업이 창출되어야 했다. 게다가 인구 증가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 마침내 가장 부유한 난민들이 자본을 이전할 수 있었다. 가령 1687년에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부유한 위그노 상인들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고, 자본의 흐름은 금융 시장 활동을 자극했다. 섬유 산업은 최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위그노 장인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여러 도시에서 양모, 비단 및 천 작업장이 설립되거나 현대화되어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다. 유리 산업은 창문과 거울 생산을 전문으로 했고 사치품 무역은 특히 부채, 보석, 시계와 모자 부티크가 번성하면서 발전했다. 나아가 네덜란드는 “문학 공화국”의 중심지가 되면서 모든 문서에 프랑스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위그노 난민 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왈롱 교회 목사가 웅변과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유명했다(Labrousse, 1961).

4) 영국

영국은 16세기 중반부터 위그노를 후원하고 보호하여 켄트(Kent)는 1548년경에 영국 최초로 위그노 회중을 수용했다(Cross, 1898: 3). 어린 나이에 즉위한 에드워드 6세(Edward VI, 1547-1553년 재위)는 그의 삼촌인 서머셋 공작 에드워드 세이모어(Edward Seymour Duke of Somerset)와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archbishop of Canterbury)였던 토마스 크레머(Thomas Cramer)의 격려에 힘입어 위그노 난민들에게 보호를 허락했다. 1550년에 그는 런던에 있는 외국인 교회를 영국 국교회와 동등하게 인정했으며 마틴 부서(Martin Bucer, 1491-1551)와 같은 저명한 종교개혁자도 초청했다. 메리 1세(1553-1558)의 통치 기간에는 그들이 추방되었지만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58-1603)의 즉위 이후 그들은 다시 1559년에 런던으로, 1561년에는 켄트로 돌아왔다(Smiles, 1867: 104). 그녀는 특히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의 알바(Alva) 공의 박해를 피해 온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이 난민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롱인과 함께 1561년 캔터베리에서 자신들이 세운 교회 주변 지역에 정착했고, 그 후 노리치(Norwich), 사우샘프턴(Southampton) 그리고 런던에 정착했다. 그 후에 온 위그노 난민은 1565년 콜체스터(Colchester)에 정착했다(Trim, 1999:

189-199). 1560년에서 1570년 사이에 이 피난민의 수는 약 6,000-7,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들은 장인으로 무역, 운송, 식량 산업에 종사했다. 영국이 루이 13세에 대항하여 위그노를 지원하자 소규모의 영국-프랑스 전쟁(1627-1629)도 있었다(Howat, 1974: 156). 런던은 1700년경에 많은 위그노가 영국과 그 식민지로 이주하는 데 자금도 지원하여 약 40,000-50,000명이 영국에 정착했으며, 대부분은 남부 지역의 해변 마을에 정착했고, 가장 많은 사람이 런던에 모여 당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했다(Sundstrom, 1976: 219-235). 이들 중에는 많은 숙련된 장인과 기업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들은 새로 정착한 곳의 산업혁명과 경제적 현대화를 촉진했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보이는 편애에 대한 지역 장인들의 불평을 무시했다(Schilling, 1983). 위그노 이민자들은 영어 사용, 영국 국교회 가입, 통혼, 사업적 성공 측면에서 잘 동화되었으며 실크 산업을 일으켰다(Scouloudi, 1987). 또한, 많은 위그노가 사립 가정교사, 교사, 여행 가정교사, 승마 학교 주인이 되었고 상류층에 고용되었다(Green, 2018: 389-409).

1708년에 외국 개신교도 귀화법이 통과되기 전후로 약 50,000명의 개신교 왈롱인과 프랑스 위그노가 영국으로 도피했고, 아일랜드와 다른 지역으로도 이주했다. 상대적으로 이것은 단일 민족 공동체가 영국으로 이주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 중 하나였다(The Economist, 2008). 켄트 해안에 도착한 난민 중 많은 사람이 당시 이 지역의 칼뱅주의 중심지였던 캔터베리로 몰려들었다. 많은 왈롱족과 위그노 가족이 그곳에서 망명을 허가받았으며 에드워드 6세는 캔터베리 대성당의 서쪽 지하 납골당 전체를 예배를 위해 허락했다. 이들은 터너게인 레인(Turnagain Lane)의 주택 블록 위층에서 직공으로 일했다. 다른 난민들은 원주민과는 달리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분리는 난민들이 도시에서 처음 받아들여지는 조건이었다.

런던의 프랑스 개신교회는 1550년 왕립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소호 광장(Soho Square)에 있다(Egliseprotestantelondres.org). 위그노 난민들은 런던의 쇼디치(Shoreditch)로 몰려들어 동런던의 스피탈필즈(Spitalfields)와 그 주변에 주요 직조 산업을 일으켰다(Stepney, 1998: 91-95). 원즈워스(Wandsworth)에서 그들의 원에 기술은 배터시(Battersea) 시장 정원에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 투르(Tours)에서 온 위그노 난민 중 일부는 왈론 직조공들이 이전에 정착했던 노리치로 이사했다. 프랑스인들은 기존 이민자에 더해져서 당시 도시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일부 위그노들은 당시 영국 레이스 산업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였던 베드퍼드셔(Bedfordshire)에 정착했다. 로렌(Lorraine) 지역에서 온 위그노들은 오늘날의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에 있는 스토어브리지(Stourbridge) 주변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유리 제조 전통을 이어갈 원자재와 연료를 찾아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 산업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Ellis, 2002).

낭트 칙령 이후 난민의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라로셴(La Rochelle)에서 심한 박해를 받은 후 다

시 증가했다. 1680년대에도 약 8,000-10,000명의 위그노가 영국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중 절반은 런던에, 나머지 절반은 동부에 있었다. 1685년 남트 칙령의 폐지 이후에는 4-5만 명의 위그노 교도가 영국으로 왔는데 이는 영국 인구의 1%를 차지했다. 이들은 초창기 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에서 보살핌을 받았으며 주로 런던에 정착했는데, 1700년에는 최대 14개의 프랑스 교회가 있었다. 이들은 개신교 노동윤리의식을 가지고 상인, 제조업체, 장인으로서 실크, 보석, 잡화, 종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건축가, 화가, 조각가는 궁전과 정원을 장식하는 일을 했다.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1 재임)는 위그노의 정착과 귀화를 촉진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자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의 동생 제임스 2세(James II, 1685-1688 재임)는 확고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프랑스 난민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그의 처남인 윌리엄 3세가 영국을 침략하고 스튜어트(Stuart) 왕조를 종식한 후에 개신교 신앙이 수호되었고, 위그노 난민은 보호를 받게 되었다. 1709년 앤(Ann) 여왕은 영국에 정착한 모든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위그노 상인들은 많은 자본을 영국으로 가져와 무역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나아가 부유한 위그노 상인과 기업가들은 영국 은행(Bank of England)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초대 총재인 존 후블론 경(Sir John Hublon)도 위그노 출신이었다. 오늘날 런던 주민 4명 중 1명은 위그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데, 위그노는 영국의 남동부 상업 중심지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개신교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당시 위그노의 곤경에 대해 연민과 동정심을 느낀 동시에 경제적 번영의 원천으로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꼈기에 그들을 매우 환영했다. 당시 위그노들은 특히 섬유 산업, 직조, 고품질 시계 제작, 검안사 등과 같은 무역에서 매우 숙련된 장인과 기술자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의 역량은 분명히 기술 지식과 인적 자본의 광범위한 확산에 도움이 되었는데, 둘 다 장기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전 세기에는 고도로 숙련된 영국 장인들이 더 높은 급여를 찾아 프랑스로 이주했는데 위그노는 실제로 이러한 기술적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영국으로 되돌려주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영국의 섬유 산업과 이후 산업혁명의 발전에 이바지했다(Beaudreau, 2016). 또한, 위그노는 특히 셰필드(Sheffield)에서 철강 산업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1689년에 언론의 자유가 도입되면서 위그노교도는 문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여러 작품을 출판했는데 그중 주 3회 발행되고 위그노 디아스포라를 연결한 집배원(Post-man)과 젠틀맨 잡지(Gentleman's magazines)도 있다. 또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가장 유명한 위그노 교도였다.

5) 아일랜드

남트 칙령이 철회된 후, 많은 위그노들이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에 아일랜드에 정착했으며,

아일랜드 의회도 이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장려했다(Hylton, 2005: 194). 위그노 연대는 아일랜드의 윌리엄 전쟁에서 오렌지의 윌리엄(William of Orange)을 위해 싸웠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 보조금과 작위를 받았으며, 많은 위그노들이 더블린(Dubline)에 정착했다. 기타 중요한 위그노 정착지는 코크(Cork), 포타링턴(Portarlington), 리스번(Lisburn), 워터포드(Waterford) 그리고 요할(Youghal)이었다. 포타링턴의 프랑스 교회는 16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위그노 공동체를 위해 지어졌고 당시 그들은 마을 사람 대부분을 구성했다.¹³ 캐번(Cavan) 카운티의 킬레산드라(Killeshandra)를 포함한 소규모 정착지는 아마 재배 확대와 아일랜드 린넨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했다. 많은 위그노들이 17세기와 18세기에는 더블린, 코크, 요할, 워터포드에서 그 지역에서 지도력과 높은 책임의식을 인정받아 시장을 역임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이름과 주요 마을과 도시의 일부 지역은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위그노 후손 중 한 명은 손 레마스(Seán Lemass, 1899-1971)로 1959년부터 1966년까지 총리로 재직했다.

6)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사이의 역사적 동맹인 올드 동맹(Auld Alliance)의 선례에 따라 위그노는 대부분 환영을 받았고 1700년경부터 이 나라에서 피난처를 찾았다(Chater, 2012). 위그노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다른 지역처럼 스코틀랜드에 상당한 수로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스코틀랜드 문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아놀드 플레밍(John Arnold Fleming)은 1953년 스코틀랜드에 미친 위그노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했으며(Fleming, 1953), 사회학자 에이브러햄 라벤더(Abraham Lavender)는 위그노가 칼뱅주의 관습을 고수하는 것이 스코틀랜드 사람들과의 호환성을 촉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했다(Lavender, 1989). 이들은 칼뱅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John Knox)와 함께 성경에 기초한 청지기적 기업가정신을 실천하여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스코틀랜드의 발전에 다양하게 이바지했다.

7) 스위스

스위스로 간 위그노는 약 2만 명으로 추산한다. 스위스 연방은 당시 연방 의회 지배를 받는 13개 주, 동맹국, 종속국으로 구성되었으며 베른(Bern)과 취리히(Zürich)주가 가장 중요했다. 그 당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국가가 두 블록으로 나뉘었으며 개신교 스위스는 제네바(Geneva) 공화국, 베른이 지배하는 복음주의 주 그리고 뇌샬텔(Neuchâtel) 주로 구성되었다. 위그노 난민의 도착은 초창기에 종교 간 긴장을 악화시켰으며, 국가의 중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취약한 경제 상황도 악

13) www.grantonline.com/grant-family-individuals/blong-george-1790/portarlington/portarlington.htm

화시켰다. 부랑자의 수가 증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었다. 따라서 난민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환대는 그들이 주로 독일로 떠나도록 만들었다. 첫 번째 난민은 1540년에서 1590년 사이에 주로 제네바로 왔고, 두 번째 난민은, 1685년 낭트 칙령 폐지 전후에 주로 도팽(Dauphin), 세벤느 그리고 랑에독(Languedoc) 지역에서 왔다. 주요 탈출 경로는 제네바 호수에서 라인강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제네바와 발레(Valais)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인구가 밀집되어 난민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된 로잔으로 이어졌다.

스위스는 대부분 난민이 친척이나 도움을 기다리거나 정보를 기다리는 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통과 경로였으며, 이들은 개신교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프랑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난민들은 이동성이 잦았고, 종종 집을 바꾸었으며, 다수가 가난했고, 당국은 떠돌이 부랑자와 거지들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수만이 영구적으로 정착했으며, 특히 공장과 같은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국은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없는 “거주자”라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베른 당국은 새로운 행정 구조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683년에 설립된 난민 회의소로, 그 범위는 점차 전 영토로 확대되었다. 이곳은 난민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규제 기관 역할을 했으며 정부의 감독을 받았고 1789년까지 그 효력을 유지했다. 주요 활동은 모금 행사를 조직하고 이러한 자선기금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프랑스 난민과 접촉하고, 자격과 기업가의 능력을 확인하여 새로운 제조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상공 회의소나 기존 제조업체는 자격을 갖춘 위그노에게 영주권을 제안했다.

위그노 난민들 또한 서로 돕기 위해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을 만들었으며, 가장 큰 수당은 로잔에서 부여되었다. 수당은 물질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왕에게 청원, 개신교 왕자와의 접촉, 사회생활 조직, 도덕적 감독, 지역 주민과의 관계와 같은 외교 활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위그노의 유입은 당시 스위스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되었다. 심지어 스위스 목회자도 프랑스 목사와의 경쟁을 두려워했으며 1687년 로잔이 난민으로 가득하게 되자 베른 당국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결국, 1694년에 베른은 모든 난민이 떠나도록 명령하고, 독일, 네덜란드 또는 영국으로 보내기도 했다.

17세기 말 스위스의 경제 상황은 밀 위기, 빈곤, 실업으로 매우 나빴다. 하지만 이곳으로 온 위그노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도덕성과 독특한 기술로 스위스에 보상하려는 동기로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 17세기 말 프랑스 문명은 스위스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고 위그노 장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제네바, 취리히, 바젤에 대한 첫 번째 위그노 난민(1551-1600)의 경제적 기여는 특히 로잔에 섬유 공장, 금세공 및 시계 제조 공장을 설립한 것이다. 그 결과 실업과 빈곤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난민들이 온 베른과 같은 도시에서 프랑스 사업가들은 자본 부족, 자격이

부족한 노동력, 구정권의 비용통성에 직면했다. 하지만 신앙 고백적 연대는 경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위그노 난민에게 거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것을 정당화했다. 각 도시는 이들 기업가에게 대출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세금 면제 또는 시장 보호를 제공했다. 국가는 사업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독점 생산이 허가되었는데, 가령 로잔의 레이스 무역이 있다. 1689년 로잔에는 6,204명의 주민이 있었고, 그중 20%인 1,598명이 위그노 난민이었다.

제네바의 상황은 특별했다. 종교개혁은 1536년에 정식으로 채택되어 깔뱅이 그곳에 정착했을 때, 그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조직은 이 도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첫 번째 박해 이후, 제네바는 많은 프랑스 난민을 끌어들이었고 이곳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개신교의 확실한 수도가 되었다. 도시 당국은 이들 이주민에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했다. 가령, 그들은 정치적 권리가 없었고 자녀들도 “주민”이라고 불렸지만, “시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선포된 거룩한 복음적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의 열망 때문에” 정착했다고 서면으로 선언하면 받아들여졌다. 많은 위그노 난민들이 제네바를 통과했지만, 일부는 정착하였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경제에 가장 “유용한” 사람들이었다. 가령 인쇄업자인 로베르 에스티엔느(Robert Estienne)의 경우가 그랬다. 그 결과 제네바는 작은 마을에서 유명한 문화 및 경제 중심지로 발전했다. 16세기에 제네바는 출판, 시계 제작, 금세공 및 섬유 산업이 발전했다. 이 도시는 10년 동안 5천 명의 난민과 함께 인구가 두 배로 증가했다. 당시 제네바에서는 깔뱅 이후로 보석 착용이 불법이었을 정도로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규제된 도시여서 세계적인 금세공인들은 사업을 접었지만, 위그노가 도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부 위그노는 철저한 성경적 직업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전문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디자인과 공예품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금세공인들과 협력했다. 이것이 유명한 스위스 시계 산업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 프랑스 산업을 거의 완전히 능가했다. 기타 은행, 섬유 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제네바는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모여면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했다(최용준, 2018: 323-351).

8)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1685년경, 위그노 난민들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루터교 개신교 국가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다. 약 5만 명의 위그노가 독일에 정착했고, 그중 2만 명이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에서 환영을 받았다. 특히 브란덴부르크(후에 프로이센)는 그들을 환대했는데, 이는 낭트 칙령 폐지 후 불과 몇 달 만에 포츠담 칙령(1685)을 통과시키고 프랑스 팸플릿과 신문을 통해 환영의 메시지를 퍼뜨린 것에서 알 수 있다. 위그노들이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프로이센 왕은 그들을 수송하기 위해 배를

보냈으며 그들은 도착한 후 주어진 농장에서 일해야 했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위그노들이 30년 전쟁 동안 황폐해진 지역과 마을에 정착했는데, 독일 대부분이 아직 사회경제적 피해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농업과 특히 섬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위그노 난민들은 포츠담 칙령의 14개 조항에서 약속된 다양한 특권과 창업 지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성직자에 의한 프랑스적 신앙의 자유와 예배가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법률 체계, 임시 세금 면제, 무료 길드 멤버십, 시민권 부여, 상업 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 조달 등이 보장되었다. 토지 및 무료 건축 자재도 제공되는 등 광범위한 양보를 통해 브란덴부르크는 프랑스 난민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다른 지역보다 유리했다(Fuhrich-Grubert, 2009: 1125-1224).

위그노들은 또한 프로이센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프리드리히(Friedrich Wilhelm, 1649-1688년 재위) 대왕의 하인 중 한 명은 위그노교도였으며, 그들은 왕실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당시 프리드리히 대왕은 독일어를 야만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그의 선호 언어가 되었다. 프로이센 왕의 오랜 친구이자 서신 교환원이었던 볼테르(Voltaire)는 궁정에서 독일어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심지어 1780년대에 독일 문화가 프랑스 문화보다 250년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읽고 싶은 독일어책을 발견했을 때에도 항상 프랑스어로 번역할 정도였다(Gloger, 1985).

프리드리히 대왕은 위그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가령 앙게르뮌데(Angermünde)에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 그리고 베를린에 프랑스 교회를 제공했다. 그러자 경험이 풍부한 농부, 정원사, 장인들이 이미 프랑스 전문 그룹의 엘리트에 속해 있던 전문가인 위그노들과 함께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로 왔다. 그들은 이전에 브란덴부르크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식과 현대 제조 기술을 가져왔다. 직물 제조업자, 양모 방적공, 모자, 장갑과 스타킹 직조공, 염색공, 태피스트리 및 실크 직공, 리넨 인쇄공, 모자 제조공 등 섬유 산업의 숙련된 근로자 수가 평균 이상이었다. 가발 제작자, 커틀러, 시계 제작자, 거울 제작자, 제과업자, 제빵업자, 제본업자, 에나멜 제작자, 카페테리아뿐만 아니라 상인, 의사, 약사, 공무원과 판사도 여기에 정착했다. 브란덴부르크 군대에는 6백 명의 프랑스 장교도 합류했으며 천 명의 병력이 강화되었다(Gresch, 2009: 101-117).

브란덴부르크의 제조업 또한 위그노 난민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다. 가령, 설탕 및 담배 생산이 그러했다. 그러나 베를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태피스트리의 연속적인 생산이었다. 17세기 말까지 태피스트리는 여전히 프랑스의 산업이었지만 이 분야에서 유명한 가문의 일부 난민들이 베를린에 거주했다. 브란덴부르크에 도착한 직후 이들은 태피스트리 생산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그런 다음 공장을 지어 매우 높은 품질의 금, 은, 실크, 양모로 태피스트리를 생산했다. 당시 동아시아지역을 모티브로 한 카펫인 유명한 “중국 시리즈”가 탄생했다. 이처럼 새로운 조국에서 효율적인 제조

업의 발전과 더욱 현대적인 경제 조건을 위한 결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위그노 기업가들이었다. 기타 문학, 예술 및 과학의 발전에도 위그노들은 크게 이바지했는데, 가령 이들은 1700년에 설립된 베를린 왕립 과학 및 문학 아카데미의 설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회원의 3분의 2가 프랑스 출신이었다(Fischer, 2010).

또 다른 4천 명의 위그노교도가 바덴(Baden), 바이로이트(Bayreuth), 안스바흐(Ansbach), 헤센-카셀(Hessen-Kassel),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베테라우(Wetterau), 팔츠(Pfalz)와 츠바이브뤼켄(Zweibrücke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자를란트(Saarland) 등에 정착했고, 1,500명이 함부르크(Hamburg), 브레멘(Bremen), 니더작센(Niedersachsen)에, 300명의 피난민이 셀레(Celle)에 있는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Brunswick-Lüneburg) 공작 게오르크 빌헬름(Georg Wilhelm)의 궁정에서 피난처를 얻었다.¹⁴

베를린에서 위그노는 도로텐슈타트(Dorotheenstadt)와 프리드리히슈타트(Friedrichstadt)라는 두 개의 새로운 구역을 만들었다. 1700년까지 이 도시 인구의 5분의 1이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베를린의 위그노는 거의 1세기 동안 교회 예배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1806-07년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점령한 것에 항의하여 예배 언어를 독일어로 바꾸었다(Fischer, 2010).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전역에 여러 회중이 설립되었는데, 덴마크의 프레데리시아(Fredericia), 스톡홀름,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헬싱키, 엠덴이 그 예다.

브란덴부르크에 온 위그노들의 후손 중 다수가 프로이센에서 중요한 지위에 올랐다. 시인 테오도르 폰타네(Theodor Fontane)(Steinhauer, 1977: 315), 제1, 2차 세계대전의 몇몇 저명한 독일 군사, 문화 및 정치 인물은 위그노 출신이었다. 기타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로타르 드 마이지에르(Lothar de Maizière)와 전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인 토마스 드 마이지에르(Thomas de Maizière)가 있다(Leiby, 1999: 109). 2014년 American Economic Review의 한 연구는 위그노가 프로이센으로 이주한 것과 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연관시켰다(Hornung, 2014: 84-122). 독일 헤센주의 바트 칼스하펜(Bad Karlshafen)에는 위그노 박물관과 위그노 기록 보관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가족 역사, 도서관, 사진 기록 보관소도 있다.¹⁵

9) 프랑스

1787년 11월 7일,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칙령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이들에게도 천주교도와 동등한 시민권과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조국을 등

14) www.hugenotten.de/hugenotten/refuge.php

15) www.huguenot-museum-germany.com

졌던 위그노 후손 중 일부는 다시 돌아왔으며 이들은 프랑스의 경제적 발전에도 공헌했다. 18세기 앵글로색슨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은 대학의 근대화에도 이바지했다. 그 예로 기술 교육을 대학에 도입한 것이다. 경제생활과 관련하여서도 그들은 합리적 노동 조직에 기초한 현대 서구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슬럼베르거(Schlumberger), 푸조(Peugeot), 말레(Mallet), 하비랜드(Haviland), 비엘주(Vieljeux), 델라마스(Delamas)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는 19세기에 섬유 제조업체나 양모 산업, 신생 철강 산업의 경영자, 신용 정책을 통해 상당한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던 상업 은행의 경영자도 있다.¹⁶ 가령 말레 은행은 제노바 개신교도인 아이작 말렛(Isaac Mallet)이 1713년에 설립하여, 19세기에 절정에 달했으며 프랑스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III. 결론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아공,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위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온 위그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그곳에 잘 정착하여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번영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면한 노동윤리를 실천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지역에 적합한 여러 산업을 일으켜 그들이 정착한 나라에 거의 모든 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는 디아스포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약 7백만 재외동포 중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며 신앙이 없던 동포들도 해외에서 신앙을 가진 경우도 매우 많다. 이들도 위그노처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개신교 노동윤리를 실천하여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 지역 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기업인들도 적지 않다. 물론 신앙적 박해가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볼 때 앞서 프랑스 디아스포라 위그노들이 보여준 소중한 교훈과 역사적 유산들을 본받아 각자 처한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리스도인들도 현지에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정착한 지역과 국가가 발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이다.

16) museeprotestant.org/en/notice/protestants-and-economic-life/?parc=21769

보다 구체적으로 위그노들은 종교적 박해와 강제 이주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번성했다. 이는 한국이 겪은 역사적 시련(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과 유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개척 정신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도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위그노들은 인쇄업, 직물업, 금융업,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금융과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프로이센에서는 군수산업과 행정 개혁에 이바지했다. 그러므로 한국도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위그노들이 정착한 나라에서 산업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한국의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그노들은 성실한 노동윤리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었으며, 후대에도 이를 계승했다. 이러한 가치관은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었다. 따라서 한국도 교육과 윤리 경영을 중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책임과 혁신을 고려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그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넓혔다. 오늘날 한국도 K-문화, IT, 스타트업, 한인 디아스포라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한국 정부는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 이민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이러한 위그노의 역사는 좋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위그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성원용 (2021). **위그노처럼**. 서울: 국민북스.
- 유경하 (2022). 로잔운동 관점에서 본 위그노 - 디아스포라 위그노가 근대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제60권,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385-415.
- 조병수 (2018). **위그노,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 최용준 (2014).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신앙과 학문**. 19(1), 153-181.
- 최용준 (2018).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3), 323-351.
- Bakker, M. W. & Knetsch, F. R. J. (1985). *Hugenoten in Groningen. Franse vluchtelingen tussen 1680 en 1720*. Groningen: Wolters-Noordhoff / Bouma's Boekhuis.
- Beaudreau, B. C. (2016). Calvinism, Huguenots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A Proceeding at the Economic and Business History Conference in Dec. 2016.
- Birstiel, E. & Bernat, C. (2001). *La diaspora des huguenots. les refugies protestants de France: Les réfugiés protestants de France et leur dispersion dans le monde (XVIe-XVIIIe siècles)*. Paris: Honoré Champion.
- Botha, C. G. (1919). *The French refugees at the Cape*. Cape Town: Cape Times Limited.
- Calvin, C. (1945). *The Calvin Families*. University of Wisconsin.
- Chater, K. (2012). *Tracing Your Huguenot Ancestors: A Guide for Family Historians*. Pen & Sword.
- Cross, F. W. (1898). *History of the Walloon & Huguenot Church at Canterbury*. Canterbury: Printed for the Huguenot Society of London.
- The Economist. (2008). *The Huguenots in England*. 28 August.
- Ellis, J. (2002). *Glassmakers of Stourbridge and Dudley 1612-2002*. Harrogate: Jason.
- Fischer, G. (2010). *Die Hugenotten in Berlin*. Berlin: Hentrich & Hentrich Verlag.
- Fleming, A. (1953). *Huguenot influence in Scotland*. W. Maclellan.
- Forest, H. (2021) The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Huguenot Exodus. (hercynianforest.medium.com/the-social-and-economic-significance-of-the-huguenot-exodus-695badcf947)
- Fourie, J. & Von Fintel, D. (2014). Settler skills and colonial development: the Huguenot wine-makers in eighteenth-century Dutch South Africa. *The Economic History Review*. 67 (4). 932-963.
- Fuhrich-Grubert, U. (2009). Minoritäten in Preußen. Die Hugenotten als Beispiel. Neugebauer,

- W. (Hrsg.) *Handbuch der Preußischen Geschichte*. Bd. 1: Das 17. und 18. Jahrhundert und Große Themen der Geschichte Preußens. De Gruyter, Berlin.
- Gloger, B. (1985). *Friedrich Wilhelm – Kurfürst von Brandenburg. Biographie*. Berlin: Verlag Neues Leben.
- Green, B. (1998). Settlement and Building to 1836, *A History of the County of Middlesex* Volume 11, 91-95.
- Green, M. (2018). Bridging the English Channel: Huguenots in the educational milieu of the English upper class. *Paedagogica Historica*. 54(4), 389-409.
- Greengrass, M. (1985) Protestant exiles and their assimilation in early modern England. *Immigrants & Minorities*. 4(3), 68-81.
- Gresch, E. (2009). *Die Hugenotten. Geschichte, Glaube und Wirkung*. 4., überarbeitete Auflage.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Griffin, S. (2018). *The Huguenot Diaspora and the American Revolution*.
- Gwynn, R. (1983). The number of Huguenot immigrants in England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9(4), 384-395.
- Hornung, E. (2014). Immigration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The Huguenot Diaspora in Prussia.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 84-122.
- Howat, G. M. D. (1974). *Stuart and Cromwellian Foreign Policy*. New York: St. Martin's Press.
- Hylton, R. (2005). *Ireland's Huguenots and Their Refuge, 1662-1745: An Unlikely Haven*. Brighton and Portland, OR: Sussex Academic Press.
- Labrousse, E. (1961). Le Refuge hollandais: Bayle et Jurieu. *Dix-septième siècle, Revue publiée par la Société d'étude du XVIIe siècle*. n° 76-77, 75-93
- Lavender, A. (1989). *French Huguenots: From Mediterranean Catholics to White Anglo-Saxon Protestants*. Peter Lang.
- Le Hir, M. P. (2020). *French Immigrants and Pioneers in the Making of America*. McFarland.
- Leiby, R. (1999). *A. The Unification of Germany, 1989-1990*. Greenwood Publishing Group.
- Lugan, B. (1996). *Ces Français qui ont Fait l'Afrique du Sud*. C. de Bartillat.
- Luu, L. B. (1997). French-speaking refugees and the foundation of the London silk industry in the 16th century. *Proceedings-Huguenot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26, 564-576.
- Mckee, J. & Vigne, R. (2013). *The Huguenots: France, Exile & Diaspora*.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 Schilling, H. (1983). Innovation through migration: the settlements of Calvinistic Netherlanders in

- sixteenth-and seventeenth-century Central and Western Europe. *Histoire Sociale/Social History*. Vol. XVI, Nr. 31 (May 1983): 7-33.
- Scouloudi, I. (Ed.) (1987). *Huguenots in Britain and Their French Background, 1550-1800: Contributions to the Historical Conference of the Huguenot Society of London, 24-25 September 1985*. Basingstoke: Macmillan.
- Scoville, W. C. (1952). The Huguenots and the Diffusion of Technology.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0, No. 4, 294-31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les, S. (1867). *The Huguenots: their Settlements, Churches, & Industries in England and Ireland*. London: John Murray.
- Steinhauer, H. (1977). *Twelve German Novell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ndstrom, R. A. (1976). French Huguenots and the Civil List, 1696-1727: A Study of Alien Assimilation in England. *Albion*, 8(3), 219-235.
- Trim, D. J. B. (1999). The Secret War of Elizabeth I: England and the Huguenots during the early Wars of Religion, 1562-77. *Proceedings of the Huguenot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27(2), 189-199.
- Walker, E. (1968). *A History of Southern Africa*. London.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 Watkinson, W. L. & Davison, W. T., eds. (1875). William Shaw and South Africa. *The London Quarterly Review*, Vol. 44. J. A. Sharp.
- <https://huguenotmuseum.org/event/huguenots-and-the-industrial-revolution>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museeprotestant.org/en/notice/protestants-and-economic-life/?parc=21769>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museeprotestant.org/en/notice/the-huguenot-refuge-in-america/?parc=31903>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www.huguenot-museum-germany.com>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www.hugenotten.de/hugenotten/refuge.php> (2025년 1월 30일 검색)
- <https://www.thecanadianencyclopedia.ca> (2025년 1월 30일 검색)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 of Diaspora Huguenots

최 용 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종교개혁 시대에 박해를 받아 전 세계로 흩어진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역사적 연구이다. 이들은 당시에 비록 난민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고급 기술을 가진 정밀 시계 가공업자, 인쇄업자, 금속장인, 섬유업자, 기업가, 은행가, 교사, 법률가, 의사, 상인들이었다. 낭트 칙령(L'édit de Nantes)이 1685년 루이 14세(Louis XIV)의 퐁텐블로 칙령(L'édit de Fontainebleau)에 따라 폐지된 이후 더 많은 위그노가 스위스뿐만 아니라 남아공,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지로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그렇다면 왜 이 위그노들은 당시 천주교도들과 다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역동적으로 넘쳐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이 디아스포라 위그노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고찰한 후 이러한 역사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 결론을 내린다.

주제어: 위그노, 칼빈주의, 기업가정신, 노동윤리, 산업혁명